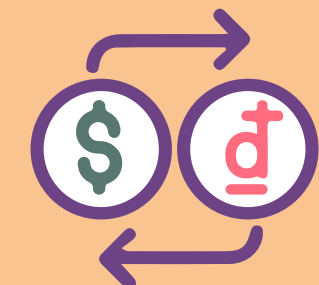


호찌민
하노이: 흐림 공해 낮음, 최대32도, 최저 24도
다낭: 흐림 최대31 최저26도
서울: 맑음, 최대27도, 최저 14도



환율: 베트남 동 -> 미국 달러
살 때: 23,260.00 / 팔 때: 23,630.00
(Vietcombank 2023.05.15 15:08시 기준)

무비자 기간 늘어났다... 기존 15일->45일 확대 동의 5월 22일 통과 후 적용 예정



연장하고 복수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제안을 지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레 탄 토이 의원은 금요일 회의에서 "이러한 변화가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더 오래 체류하려는 외국인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본 토의에 대한 소의를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안보위원회는 또한 현재 15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특정 국가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45일로 3배 늘리는 데도 동의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베트남이 현재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169개국), 말레이시아(162개국), 싱가포르(158개국), 필리핀(157개국), 태국(68개국)보다 훨씬 적은 25개국 국민에게만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며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본 개정안은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3.05.13)

중요

국회 국방안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자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13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우선 국방안보위 의원들은 전자 비자의 유효기간을 30일에서 최대 3개월로

빈패스트, 단숨에 세계3위 전기차기업 등극 스팩합병으로 뉴욕증시 상장 눈앞



베트남 토종 전기차 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의 뉴욕증시 상장 이머지가 멀지 않았다. 스펙(SPAC)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택함으로써 연내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인사이드브리가 15일 보도했다. 빈패스트(VinFast Auto Pte. Ltd)는 뉴욕증시 상장사 블랙스페이스에 퀴지션(Black Spade Acquisition Co(NYSE: BSAQ)과 지난 12일 합병(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빈패스트에 따르면 양사의 합병 기업가치는 약 270억달러, 이중 빈패스트의 지분가치는 230억달러로 평가받았다(신탁현금 1억6000만 달러에서 전환 금액은 제외). 양사는 이번 합병에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의 합병은 규제당국 및 주주들의 승인을 거치면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후 빈패스트의 기존 주주는 합병회사의 주식의 99%를 보유하게 된다. BSAQ는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업체다. SPAC 우회상장은 미국 증시에서 흔히 하는 IPO(기업공개) 방법으로 많은 이름난 기업들이 이를 택했고 빈패스트도 결국 이 방식을 택한 것이다. 레 투이(Le Thu Thy) 빈패스트 글로벌 CEO는 "이번 합병을 통해 빈패스트는 글로벌 시장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며 "BSAQ와의 파트너십

최악 폭염 드디어 끝난다... 남부지방 우기 이번주 본격 시작



우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찌민시와 인근 지역은 이미 지난주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큰비가 한차례 내린 후 더위가 한풀 꺾였고, 이후 매일 구름끼고 스팀성 소나기가 짧게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뭄으로 말려버린 이들 지역 일부 저수지의 물 부족 현상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의 전형적인 날씨의 낮에는 맑고 오후나 저녁 또는 밤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아니면 온종일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맑은 날씨의 최고기온은 섭씨 30~33도 내외로 높지만 비가 오고나면 기온이 3~4도 내려가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다. 북부지방도 낮 최고기온이 29~31도로 많이 낮아지면서 전력사용량이 위급단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주 전까지 동남아 및 남아시아 전역과 마찬가지로 최고기온이 44도에 오르는 등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과 가뭄을 기록했다. (인사이드브나 2023.05.15)

주목

거의 두달째 이어져온 베트남 전역의 최악 수준이던 폭염과 가뭄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드디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이드브리가 15일 보도했다.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호찌민시와 메콩델타 등 남부지방이 본격적으로 우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중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순으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베트남 최대 비관세항 착공...하이퐁 쑤언꺼우비관세항, 2025년 완공예정



베트남 최대 비관세항이 될 하이퐁시(Hai Phong) 단부-깡하이(Dinh Vu - Cat Hai) 경제구역 내 쑤언꺼우(Xuan Cau) 산업단지 및 비관세구역(이하 쑤언꺼우비관세항)이 13일 착공했다고 인사이드브리가 15일 보도했다. 사업 시행자인 쑤언꺼우-락후엔투자(Xuan Cau - Lach Huyen Investment)가 11조1000억동(4억7300만달러)을 투자하는 쑤언꺼우비관세항은 총 752만㎡

규모로 이중 370만㎡는 산업단지, 나머지는 창고 및 물류시설 등으로 락후엔항(Lach Huyen)의 배후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2021년 4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공되고, 이후 2030년 2단계, 2033년 3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쑤언꺼우비관세항이 완공되면 최대 5만명이 근무하게 되는 국내 최대의 비관세항이 된다. 곧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관세가 없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특소세가 면제된다. 이날 착공식에서 팜 민 쩐(Pham Minh Chinh) 총리는 "도크 길이 6km 규모로 개발 중인 심해항인 락후엔항의 배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쑤언꺼우비관세항은 깃바국에게 가깝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며 "하이퐁시와 이 관세항이 선도적인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국제 해상물류운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쑤언꺼우비관세항을 비롯해 전국 18개 성·시에 21개의 비관세구역이 있다. (인사이드브나 2023.05.15)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톡 "신짜오베트남" (http://pt.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 283. 2000 | T. 028. 3511. 1075 / 1095





주방 수전전용 직수형 정수기

대용량 11단계 정수 필터

렌탈: 450,000 (VND)
일시: 4,500,000 (VND)
1년치 필터 + 주방수전 싱크헤드

녹물 염소 중금속 제거 100%

NSF, ISO, K-water, VWA, AHA

고객님들께 추천 드립니다

- 01 **밥물 국물 설거지를 깨끗한 물로 사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 02 **짙은 필터교체 없이 6개월에 한번 손쉬운 자가필터 교체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 03 **365일 녹물 전혀 보지 않고 생활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K-water 필터는 LG 정수기에 납품하는 동일 회사의 필터 소재를 사용합니다







무료설치

국내 검사 시험 및 인증







호찌민 081.455.3849 **하노이 079.251.9055**
kwatervn **www.kwatervn.com**



신짜오베트남 부설 대정컨설팅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베트남 투자자문, 법인설립, 노동허가, 각종 라이선스, 거주증, 비자등

Tel : 083 568 1000(KR) / 0906 822 374(VN) E-Mail : kksjeon@gmail.com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충격

한주필 칼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각자 고유의 문화가 있는 탓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느끼는 문화의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가 상상 이상으로 크거나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질적인 경우, 우리는 그런 차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문화충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겪는 외국인의 문화충격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시민의식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베트남에 와서 느끼는 문화충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더운 날씨는 제외하고는 교통 혼잡과 제멋대로 다니는 오토바이 행렬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이기보다는 환경의 차이죠.

30년 전 처음 왔을 때 겪은 문화 충격 중의 하나는 복장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아침에 잠옷 바람에 시장을 다니는 모습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지요. 정작 잠옷을 입고 다니는 여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인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진 문화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차이는 사실 견딜 만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위야 각오한 바고, 교통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고, 복장은 웃음을 던져 줄 정도니 그저 넘길 수 있는 차이인데, 진정한 문화충격을 주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대형 기계를 판매하는데, 구입 문의가 들어오면 문서로 정중하게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 후 베트남 회사에서 네고를 시작하는데, 제시된 가격의 반을 잘라 카운트 오퍼를 합니다. 한국사람은 어이가 없지요. 이 친구들이 이 물건을 중고 시장에서 나도는 구제품 의류 정도로 아는가 싶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런 가격 협상이 이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정해진 가격이라 해도 무조건 반값의 할인가격을 질러보는 것으로 상대의 의중을 떠보며 가격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인데, 무역거래에서의 고전적 가격 내고 협상만 경험했던 한국인 무역상은 진저리 치며 물러갑니다.

이런 문화는 전통 시장에서 늘 경험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는 게 반갑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터무니 없는 가격 협상입니다. 부르는 가격의 절반을 치르고 구입해도 그 가격이 정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전통시장의 가격 협상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며 생활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장바닥에서나 통용되는 줄 알았던 덤핑 가격 흥정이 무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가볍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을 주는 문화는 소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고함치듯 나누는 이야기 소리, 밤늦도록 틀어놓는 노랫소리, 도로에서 맘껏 엔진음을 높이며 달리는 오토바이 소리 등 베트남은 소음의 천국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당구장에 갔다가 현자인이 거침없이 질러대는 고함소리에 질려서 중간에 도망치듯 빠져 나올 정도로 이들은 소음에 대하여 참으로 관대합니다. 베트남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변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베트남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색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베트남에서 말입니다.

지난해 달랏을 다녀오다 길거리에서 파는 보라색 고구마를 한 보따리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특산물이라 너무 많다고 이웃집에 나눠줍니다. 그 이웃집에는 일본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온 집사람이 하는 말이, 물건 받

는 반응이 좀 뻘컘 하더라, 일본애들 문화가 그런가봐 하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6-7개월이 지나 옛그제 집사람이 그 이웃집 일본 여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인사를 하며 고구마 얘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오후, 집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있는데, 일본 브랜드 맥주 2캔과 망고 말린 조각이 몇 개 들어있는 과자가 쪽지와 함께 놓여있습니다. 쪽지에는 그때 받은 고구마에 별레가 많아서 호의인지 의문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물건을 주고받지 말고 미소만 나누자는 글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받은 고구마에 대한 써늘한 답례입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래 문 앞에 살짝 두고 가는 행동이 예의 바른 일본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제 고구마 값을 지불했으니 빛진 게 없다는 통고인 듯합니다.

집사람은 좀 무섭지만 문화의 차이라며 의연하게 넘기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저 허허 웃으며 더 이상 문제를 되지 않도록 반응을 삼갔습니다. 일본인의 문화는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이웃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돌려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지요.

처세에 관한 고전적 이야기 중, 따뜻한 친구, 친절한 이웃을 사귀려면, 당신이 먼저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친절한 미소를 건내 라고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조언은 상대가 상식적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호의나 친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곡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결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일러 주어야만 진정한 교훈이 되는 처세술이 될 것입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을 방문했다는 일본 총리 기사다 군의 얼굴이 유난히 길어 보입니다.



이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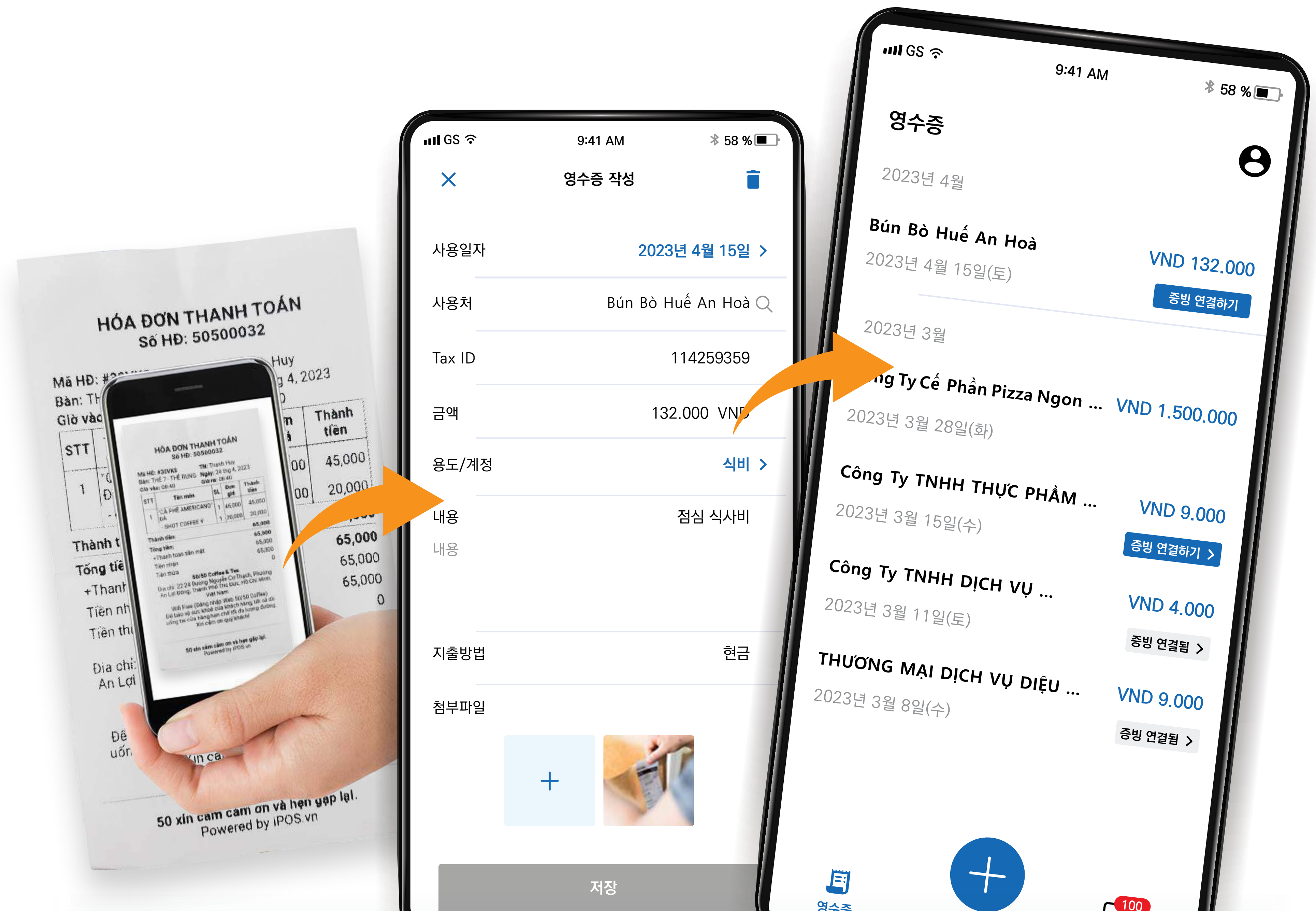
이스토어가 한다

베트남 최초 미국 자몽 수입판매

FRESH GRAPEFRUIT
카카오톡: KG531



모바일로 영수증만 찍으면 증빙 처리 3초만에 끝!



대한민국 60,000여 중소기업의 사랑을 받고있는
시경리나라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 베트남에 왔습니다.

무료 체험 상담 : (+84) 028 7300 1660 베트남어, 영어
(+84) 028 7300 1661 한국어

WWW.WABOOKS.COM / Info.vn@wabooks.com

© 2023 All rights reserved.



Ch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AD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베트남 XIN CHAO VIETNAM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G)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독방 50여곳에 배포

